

빠른 패스 과감한 돌파… 공격축구 살려라

한국, 바레인 2-1 꺾고 8강 진출
 잣은 패스 실수·느린 템포 '답답'
 내일밤 10시 카타르와 일전
 점유율·공격 속도 높여야 4강 승산



‘점유율과 빠른 템포의 공존 방법을 찾아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3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3위의 바레인을 상대로 연장전 끝에 진압승을 거두고 아시안컵 8강에 올랐다.

하지만 벤투호는 중국과 조별리그 C조 3차전을 뒀던 상대를 확실하게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59년 만의 우승 목표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116위)과 키르기스스탄(91위)을 상대로 밀집 수비의 해법을 찾지 못해 두 경기 모두 1-0 신승을 거뒀다.

그나마 손흥민(토트넘)이 합류하고 치른 중국전에서는 한국 축구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위험지역에서의 정밀한 패스가 나오면서 2-0 완승을 했다.

중국전 패승으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바레인과의 16강전에서는 느린 템포의 답답한 점유율 축구에 매몰돼 좀처럼 득점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벤투호의 스타일은 골키퍼부터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거쳐 공격진까지 불이 투입되는 철저한 ‘빌드업 축구’다.

하지만 이날 선수들의 패스 속도가 느렸고, 상대의 밀집 방어 스타일에 패스가 너무 많아져 이렇다할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다. 슈팅 개수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전반전 동안 한국은 점유율에서 바레인을 73%-27%로 앞섰다. 볼만 돌리다 슈팅 기회를 제대로 못 잡은 셈이다. 120분 연장 승부 동안 슈팅을 7개밖에 시도하지 못했고, 유효슈팅은 2개였다.

태극전사들은 연장 전후반 30분까지 120분을 뛰면서 평균 17분마다 한 차례씩 슈팅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답답한 경기를 펼쳤는지 드러난다.

반면 바레인은 한국보다 많은 9차례 슈팅을 시도했고, 유효슈팅도 4개나 됐다.

수비에 집중하는 팀을 만나면 점유율을 높이면서 빠른 패스와 과감한 돌파로 상대의 수비벽을 허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벤투호는 점유율만 높았을 뿐 공격 전개 작업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특히 점유율 축구의 핵심인 패스에서 실수가 잦아 스스로 템포를 잃었고, 상대에게 역습으로 실점까지 내주고 말았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황희찬(함부르크)과 김진수(전북)의 득점은 모두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 위험지역으로 볼을 보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충분히 점유율과 빠른 템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벤투호 공격수들이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고 슈팅을 너무 야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회복도 우승을 향한 중요한 요소다.

중국전이 끝나고 옛세 정도 휴식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날 선수들의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무거워 보였고, 결국 컨디션 난조가 빠른 템포의 축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됐다.

25일 한국이 준결승 진출을 놓고 싸우게 되는 카타르는 비록 FIFA 랭킹이 93위 밖에 되지 않지만 조별리그에서 3연승에 10골을 때내며 당당히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이어 ‘난적’ 이라크를 1-0으로 물리치고 8강에 올랐다.

한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빠른 템포를 살려 과감한 슈팅으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만 승산이 있다. /연합뉴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카타르와의 8강전을 앞둔 23일 오전(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 와슬 축구 아카데미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탈락하고 손흥민 돌아오라”

토트넘 팬 1000여명 SNS에 성토

“도대체 한국은 언제 떨어지나요.”

지구 반대편에 한국 축구대표팀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탈락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팬들이다.

토트넘은 현재 공격 주축인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손흥민까지 대표팀에 차출돼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한국이 아시안컵 일정을 마무리해야 손흥민이 복귀하는 만큼, 한국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다국적매체 폭스스포츠아시아는 23일 한국이

바레인과의 16강전에서 승리하자 다수의 토트넘 팬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토트넘 구단은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의 승리 소식과 손흥민의 활약상을 소개했는데, 1000명 이상의 많은 팬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영국 대중지 더선은 한국의 최종 성적에 따른 손흥민의 복귀 시점을 정리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한국이 8강에서 떨어지면 28일 크리스털 팰리스전, 4강에서 떨어지면 31일 왓퍼드전에 나설 수 있지만, 결승까지 진출하면 다음 달 2일 뉴캐슬 전부터 뛸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캡틴, 보고 있나… 우리 이겼어요”

선수들 골 넣을 때마다 ‘조기 복귀’ 기성용 등번호 세리머니

한국이 골을 터뜨린 한희의 순간 선수들은 부상으로 팀을 떠난 옛 캡틴 기성용(뉴캐슬)을 잊지 않았다.

23일 바레인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전반 43분 첫 골을 기록한 황희찬(함부르크)은 골 세리머니로 도중 황인범(대전)을 불러 나란히 섰다.

황희찬은 10개의 손가락을, 황인범은 6개의 손가락을 펴 카메라에 보였다. 펼친 16개의 손가락은 기성용의 등 번호인 16번을 뜻했다.

7일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친 기성용은 재활에 집중했지만, 결국 부상이 악화하며 21일 두바이를 떠났다.

팀의 기동 역할을 하던 기성용의 대표팀 하차에 선수들은 아쉬워하면서도 투지를 불태웠다.

황의조(강남 오사카)는 바레인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성용 선배는 팀의 중심이었고 후배들도 잘 따르는 선배였다”며 “선배에게 우승으로 보답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기성용은 한국의 두 번째 세리머니에도 등장했다. 연장 전반 추가시간 이용의 크로스를 받아 결승 헤딩골을 터뜨린 김진수(이성 전북)는 벤치로부터 기성용의 유니폼을 받아 번쩍 들어 관중에게 보였다. 손흥민(토트넘)과 지동원(아우구스부르크) 또한 유니폼을 건네받아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이 두 번의 ‘기성용 세리머니’는 선수들이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한 세리머니였다. /연합뉴스



22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의 16강전에서 연장 전반 추가 골을 넣은 뒤 손흥민과 지동원이 조기 복귀한 기성용의 유니폼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황희찬은 경기 후 기성용에 대해 “정말 존경하는 선수”라며 “모든 선수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경기장에서 성용이 형 생각이 더 나서 인범이와 경기장에서 바로 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성용으로부터 주장 완장을 물려받은 손흥민도 “형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아픈 상황에서도 훈련하고 뛰려고 노력하신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세리머니도 감동적이지만 아직 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선물은 우승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폴타임’ 이강인, 데뷔골은 아직

스페인 국왕컵 헤타페전 출전

‘숫돌이’ 이강인(발렌시아·사진)이 스페인 국왕컵(코파델레이) 헤타페전에서 폴타임 출전했지만 1군 데뷔골을 기록하진 못했다.

이강인은 23일 스페인 마드리드 폴리세움 알폰소 페레스에서 열린 코파델레이 8강 1차전 헤타페와 원정경기에서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셀타비고전 이후 단 3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된 발렌시아는 선발 선수 명단에 많은 변화를 주면서

이강인에게도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이강인은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다. 전반 21분 슈팅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헛다리 짚기’로 수비수를 숙인 뒤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 강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아쉽게도 공은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강인은 이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발렌시아의 왼쪽 측면을 책임졌다.

한편 발렌시아는 후반 32분 상대 팀 호르헤 몰리나 비탈에게 결승 골을 내줘 0-1로 패했다. /연합뉴스



볼트 “내 스포츠 인생은 끝났다”

축구 선수 포기… “사업할 것”

‘번개’ 우사인 볼트(32)가 축구선수를 향한 꿈을 미완으로 남겨둘 모양이다.

볼트는 자메이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축구 선수를 향한 도전을 접겠다는 뜻을 전했다. 영국 BBC 등이 23일 보도했다.

볼트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축구선수 도전에 대해 “좋은 경험이었다. 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트랙에서와 매우 달랐다”고 돌아봤다.

이어 “스포츠 인생은 끝났다. 이제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다”며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이다. 이것저것 손을 대보고 있고 이제 사업가가 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올림픽에서만 8개의 금메달을 수집한 육상 단거리 황제 볼트는 2017년 현역 은퇴 후 축구선수 변신을 시도했다.

호주에서 볼트는 연습경기를 통해 데뷔전을 치르기도 하고 아마추어팀과의 경기에선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결국 구단과 정식 입단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한 채 8주 만에 훈련을 마쳤다. /연합뉴스